

140km 고속 슬라이더... 이승재에게서 윤석민이 보인다

KIA-키움전 3이닝 무실점 '첫 승'
9회말 등판 호투... 팀 연승 발판
캠프 때 150km 강속구로 눈도장
해설했던 윤석민 "나랑 판박이"
멘탈 관리·슬라이더 노하우 전수도



"잘할 줄 알았다. 윤석민 판박이더라"며 윤석민이 웃음을 터트렸다.

지난 7일 KIA타이거즈 팬들은 함숨으로 시작해 탄성으로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 관람을 끝냈다.

1회부터 선발 김현수가 4실점 했지만 경기는 연장 12회말 KIA의 8-7 역전승으로 끝났다.

이날 가장 주목받은 이는 '루키' 이승재였다. 7-7로 맞선 9회말, 부담감 많은 상황에서 프로 데뷔전에 나선 이승재는 이정후와 박병호를 힘으로 눌러 외야플라이로 돌려세웠다. 김수환은 유격수 플라이로 잡으면서 이를 연속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갔다.

10회말에는 프레타타스를 유격수 땅볼로 처리한 뒤 송우현을 상대로 프로 첫 탈삼진을 뽑아냈다. 김재현은 유격수 땅볼로 잡고 역시 삼자범퇴. 11회말에도 전병우의 헛스윙 삼진, 이응규와 김혜성의 외야플라이와 함께 3이닝 퍼펙트로 데뷔전을 끝냈다.

이어 12회초 KIA가 선두타자 박찬호의 안타와 김선빈의 적시타로 8-7 역전에 성공했고, 정해영이 실점 없이 경기를 마무리하면서 이승재가 승리투수가 됐다.

2년제 강릉영동대를 졸업하고 KIA 유니폼을 입은 이승재는 캠프에서 150km 강속구로 눈길을 끈 재목이다.

하지만 '슬라이더' 숙제가 남아있었다. 라이브 피칭 당시 타석에서 공을 지켜본 선배 류지혁도 먼저 이승재를 찾아 슬라이더에 대한 조언을 해주기도 했다.

슬라이더를 기다리기 위한 이승재의 노력은 통했다. 시범경기에서 140km가 넘는 고속 슬라이더를 보여주며 불펜 한 자리를 차지했고, 데뷔전에서도 위력적인 슬라이더로 타이밍을 뺏았다.

묵직한 직구와 고속 슬라이더, KIA를 대표했던 투수 윤석민을 떠올리게 하는 모습이었다. 윤석민도 인정한 '윤석민 판박이'다.

지난 1일 자체 연습경기 해설자로 경기장을 찾아 이승재를 지켜봤던 윤석민은 "직구와 슬라이더 무브먼트가 좋다"며 "제구까지 갖추면 더 좋은 투수가 되겠지만 그게 부족하더라도 통할 수 있는 무엇인가 있다. 가운데 몰리더라도 치기 어려운 공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민은 이승재를 만나 '슬라이더 강의'도 해



이승재

KIA 타이거즈에 또 다른 대형 신인이 등장했다. 7일 키움과의 원정경기에서 프로 데뷔전을 치른 우완 이승재가 3이닝 퍼펙트 호투와 함께 승리투수가 됐다. 사진은 이닝을 마친 뒤 밝은 표정으로 덕아웃으로 가는 이승재. <KIA 타이거즈 제공>

줬다. 윤석민은 "경기 끝나고 승재, (김)현수, (정)해영이를 만났다. 나를 좋아했다고 하더라 (웃음). 승재가 슬라이더 어떻게 던지냐고 물어봤다. 나는 놀러던지는 스타일이라면서 그림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나와 던지는 게 비슷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승재는 상체가 많이 단해서 나오고, 팔 각도도 슬라이더 던지기에 좋다"면서도 "체력, 컨디션이 떨어지거나 미세한 부상이 있으면 제구가 안 될 수도 있다. 지금은 젊고 건강해서 팔이 잘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해줬다"고 덧붙였다.

윤석민은 장점에 집중해서 과감하고, 영리하게 승부할 것을 주문했다.

윤석민은 "앞으로 많이 노출되면 바깥쪽만 던져서는 어려움을 느끼는 순간이 올 것이다. 몸쪽을 잘 던져야 한다"며 "다른 변화구를 추가하는 것보다 몸쪽 직구와 슬라이더를 신경 쓰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 바깥쪽 던지다가 높게 빠지는 게 있는데 빠른 슬라이더라 그 부분이 치기 어렵다.

빠지게 던져도 승부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던지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무엇보다 윤석민이 강조한 부분은 '멘탈'이다. 윤석민은 "기술적인 이야기보다는 타자 상대하는 요령, 마음가짐 등 노하우를 공유해줬다. 야구가 기술적인 것을 업그레이드하려고 하면 너무 어렵다. 프로선수라면 미세한 차이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을 믿어야 한다. 어린 선수들은 좋을 때와 나쁠 때의 차이가 심하다. (양)현중이와

(류)현진이 보면 좋은 안 좋은 시합을 길게 끌고 간다. 실패를 하고 그것을 토대로 경험을 쌓아야 하는데 어린 선수들은 스트라이크가 안 들어가고 변화구가 미묘하면 '폼이 잘못됐다' 이런 것에 신경 쓴다. 시합하고 있는데 제구를 잡고 있다"며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시합을 끌고 가야 한다. 안 좋을 때도 풀어갈 수 있는 노하우가 10가지 이상은 있어야 오랜 시간 풀타임을 뿔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줬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세월도 비껴가는 류현진 '구속'

(만 34세)

텍사스전 7이닝 평균 145km... 호투에도 빈타에 시큰 컷 패

모든 생물은 노화한다. 흘러가는 세월에 운동 신경과 신체 능력은 떨어지기 마련이다.

야구 선수들도 마찬가지다. 각종 연구에 따르면, 프로야구 선수들은 보통 20대 후반에 정점을 찍고 30살부터 내리막길을 걷는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통계 전문사이트인 팬그래프닷컴이 2012년에 발표한 에이징 커브(나이에 따른 기량을 나타내는 곡선) 자료에 따르면, 투수들은 30살을 기점으로 기량이 뚜렷하게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여러 가지 지표 중 가장 극적으로 변하는 건 '구속'이다.

구속은 28살 이후 나이에 따른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다. 30살부터 기울기가 급해지고, 34살부터는 급격하게 하락한다. 이렇다면, 1987년생 만 34살인 류현진은 올 시즌 세월의 직격탄을 맞아야 한다. 주변에서도 걱정 어린 시선이 많았다.

류현진은 2019년 메이저리그 전체 평균자책점 1위, 2020년 아메리칸리그 사이영상 투표 3위 등 최근까지 빅리그 정상급 기량을 펼쳤지만, 올해엔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했다.

다행스럽게도 류현진은 현재까지 에이징 커브에 관한 우려를 씻어내고 있다.

그는 2일 뉴욕 양키스와 개막전에서 5.2이닝 2자책점을 기록하며 무난한 모습을 보였고, 두 번째 경기인 8일 텍사스 레인저스와 원정경기에선 7이닝 2자책점으로 맹활약했다.

류현진은 텍사스전에서 소속 팀 야수들의 실수와 타선의 침묵 등으로 시즌 첫 패배를 기록했지만, 개인 성적은 나쁘지 않았다.

세부적인 지표도 좋다. MLB 통계 사이트인 베이스볼리퍼의 경기 자료에 따르면, 류현진의 구속은 예년과 비교했을 때 큰 변화가 없다.

류현진은 텍사스전 직구 최고 구속 92.1마일(148km), 평균 구속 90.1마일(145km)을 기록했다. 직구 비중은 적었지만(90개 중 19개·21%), 구속은 떨어지지 않았다.

MLB 통계 사이트 브룩스베이스볼에 따르면, 류현진의 지난해 직구 평균 구속은 90.17마일(145km), 역대 최고 성적을 냈던 2019년엔 90.96마일(146km)이었다. 차이가 거의 없다.

물론 지금은 힘이 차고 넘치는 시즌 초반이라서 에이징 커브를 극복하고 있다고 단언하기엔 이르다. 그러나 류현진이 만 34세에 맞이한 2021시즌 첫 단추를 잘 끼우고 있다는 건 확실한 사실이다.

/연합뉴스

양현종, 마이너리그서 2이닝 무실점

텍사스 예비팀 선발 등판... 24개 던져 피안타 없이 볼넷 1개

양현종(33·텍사스 레인저스)이 휴스턴 에스트로스 산하 마이너리그 예비팀과의 연습경기에 선발 등판해 호투했다.

미국프로야구 마이너리그 홈페이지는 8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라운드록 델타아일랜드에서 열린 텍사스와 휴스턴의 마이너리그 예비팀 연습경기 결과를 전했다.

양현종은 텍사스 예비팀 선발로 나서서 2이닝 동안 피안타 없이 볼넷 1개만 내주고 무실점으로 막았다. 삼진은 3개를 잡았다. 투구 수는 24개였고, 이 중 17개가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았다.

3회에 등판한 브렛 마틴은 1이닝을 공 10개로 막으며, 삼진 3개를 잡는 호투를 펼쳤다. 그는 텍사스 언론에서 '빅리그 콜업 1순위'로 꼽는 투수다.

초청 선수 신분으로 텍사스 메이저리그 캠프에서 훈련한 양현종은 시범경기 기간에 5경기 10이닝 12피안타 6실점(평균자책점 5.40), 10탈삼진을 기록했지만 개막 로스터 진입에 실패했다.

텍사스의 첫 번째 원정길(2~5일 캔자스시티 로열스전)에 빅리그 예비 명단 격인 '텍스 스쿼드'에 포함됐지만, 빅리그 마운드에 오르지 못했다.

양현종은 텍사스 산하 마이너리그 트리플A 연



고지 라운드록에 차린 대체 캠프에 합류해 훈련을 재개하고, 8일에는 실전 등판도 깔끔하게 마쳤다. /연합뉴스